

朝鮮時代 寫經考

張 忠 植*

차 례

- | | |
|------------------|----------------|
| I. 序言 | IV. 寫經의 性格과 樣式 |
| II. 寫經의 現狀과 造成背景 | V. 結語 |
| III. 體裁와 跋文의 內容 | |

I. 序言

儒敎社會를 지향하였던 조선시대의 문화 역시 장구한 세월에 걸쳐 뿌리 내린 불교의 영향을 쉽게 벗어 나기란 어려웠다. 이 시대 대표적 문화현상이란 사회적 출세를 위하여는 治世의 도리에 입각한 유교의 이념으로 무장해야 하였고, 동시에 현세 이익적 福樂과 延壽를 위해서는 佛天의 加被를 기원하는 이중적 성격으로 부각되었다. 즉 內佛外儒와 같은 특수한 문화현상 속에 佛敎 역시 自救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의 흔치 않은 金銀字 寫經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어 흥미롭다. 물론 孝에 대한 불교적 해석도 이제 새로운 의미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지만, 法華經과 같은 사경을 통하여 亡者에 대한 追福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시대는 寫經 뿐 아니라 經板에 있어서도 法華經이 가장 많이 印行되고 있으므로 조선시대 불교의 특색은 곧 法華佛敎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화경의 寫經 자료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다.¹⁾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寫經美術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의 찬란한 金銀字 寫經에 눌러 조선시대의 寫經은 거의 외면되었음이 사실이다. 더구나 朝鮮時代 초기의 寫經美術 역시 고려시대에 비하여 양식적 변화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들어 高麗의 작품으로 보았던 오류를

* 東國大學校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 張忠植, 『韓國寫經目錄』, 『佛敎美術』 제7권(동국대학교 박물관, 1983), pp. 73~108.

범하는 등 그 양식적 편년에 대한 정리가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발문의 해석을 잘못 함으로써 사경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조선시대 사경미술에 관한 문헌자료의 검색과 함께 제작년대가 확실한 사경만을 선정하여 그 現狀과 跋文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대 사경미술의 조성배경과 성격, 編年 및 양식을 고찰할 수 있으리라 본다.

II. 寫經의 現狀과 造成背景

조선초기의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도 寫經美術은 고려의 양식을 그대로 전승하였으며, 그 발원자 역시 왕실, 또는 그 주변 인물이거나 士大夫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경에 관한 기록은 國初, 그것도 太祖로부터 世宗代에 잠시 보이고 그 이후로는 별로 없는 편이다.²⁾ 이같은 사실 역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고려시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이념이 달라진 조선시대의 寫經佛事 역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국왕 자신도 諸臣의 눈치를 보아가며 寫經業을 진행한 듯하며, 더구나 때로는 上質의 종이가 아닌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세종은 愼寧宮主 辛氏가 太上을 위하여 金字法華經을 쓰려하자 摠制 成達生 등을 불러 쓰게 하였고, 처음에 신씨가 緣化文에 임금의 花押(手決과 銜字)을 받으려 하였으나 중신들이 극구 반대하므로 ‘나도 또한 옳지 못함을 아나, 다만 경들에게 의논한 것 뿐이다.’하고 承文院에 장치한 함격 품이 아닌 종이(不合用紙)를 辛氏에게 주어 불경을 쓰게 하였다.³⁾ 뿐만 아니라 세종 자신도 조선시대 寫經體의 대표적 인물인 成達生 등에게 사경제작을 권유하면서도 “나도 옳지 않은 줄 알지만 그 소원(辛氏가 太上을 위한 寫經)이 하도 정중하여 그만두게 할 수 없다”⁴⁾는 등 변명조의 어투로 말했던 것으로 보아 그 제작이 원활치 않았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2) 『太祖實錄』 卷6, 3년 7월 甲寅條에는 태조가 王氏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前禮儀判書 韓理 등을 시켜 금으로 法華經 4부를 써서 各寺에 分置하고, 수시로 읽게 하였으며, 『太宗實錄』 卷15, 8년 6월 丙戌條에는 韓尙敬 등 7인에게 泥金으로 법화경을 쓰게 하였고, 『世宗實錄』 卷112, 28년 5월 甲午條에는 大慈庵의 轉經法會에 사용된 金書佛經은 集賢殿의 姜希顔 등에게 명령하고 首陽·安平兩大君이 來往監督하여 완성한 것임을 밝혔고, 또 同書 卷127, 32년 1월 庚子條에도 “又命副知敦寧姜希顔 成均主簿成任 金書彌陀觀音等經 分都承旨李恩哲 跋其尾 披覽七日”이라 하였다.

3) 『世宗實錄』 卷16, 4年 6月條.

4) 上同, “予周知不可 其願鄭重 似不可止 云云”

내용은 모두 國初에서부터 사경제작에 일대 변화가 왔음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임금의 花押을 반대하는 것이나, 또는 ‘不合用紙’로써 대응하는 등의 사례는 바로 조선시대의 寫經의 내용이 고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차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金·銀을 사용하여 법화경을 완성한 寫經僧 性濬과 頭僧 信生 등에게 각각 杖 80, 그리고 나머지 남녀들은 贖笞 50에 처하는 등 禁令을 위반한 죄로써 다스려 사경에 대한 일대 制裁를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 이 사건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웠고 태종의 총애를 받던 李和英의 아내 童氏가 발원한 법화경으로 인한 것이지만 앞의 사경승들과는 달리 童氏와 仁·登·金漸의 딸은 禁令 위반에 대하여 불문에 붙이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⁶⁾

그러나 朝鮮初期의 寫經은 고려의 양식을 그대로 전승하였으며, 또 그 발원자 역시 왕실 주변 인물이거나 사대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존 사경 또는 기록을 의지하여 살펴 보면 太祖가 太宗 8年(1408) 5월에 승하하자 그를 追福하기 위하여 西川君 韓尙敬을 위시하여 刑曹參議 尹珪 등 7인으로 하여금 金泥法華經 1部를 寫成케 하였으며⁷⁾, 또 같은 해 11월에는 上王인 定宗이 妙法蓮華經·父母恩重經·長壽滅罪經을 각각 1部씩 金泥로 寫成케命하였고,⁸⁾ 그리고 太宗初에 이미 太祖의 3男인 益安大君 芳毅가 法華經을 寫成하여 太上王·上王·主上殿下의 壽福을 빌었으며,⁹⁾ 또한 文宗 역시 父王 세종대왕의 추복을 위하여 법화경 7권, 梵網經 2권, 楞嚴經 10권, 彌陀經 1권, 觀音經 1권, 地藏經 3권, 懺經 10권, 十六觀經 1권, 起信論 1권을 금자로 쓰게 하고 모두 楨牋(붉은 종이, 물들인 종이)를 사용하여 甲函(큰 함)을 裝幀한 것도 매우 精緻하였다는 것으로 보아¹⁰⁾ 대체로 세종 이후 잠시 寫經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법화경의 제작은 유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현존 사경으로서 가장 앞선 것으로 조사된 太宗 5年(1405) 道人 信雲이 그의 부모를 위하여 제작한 白紙墨書妙法蓮華經(黃壽永 舊藏)을 위시하여 同王 15年(1415) 미망인 李氏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寫成한 來蘇寺 소장의 白紙墨書法華經 全七卷(전주박물관) 完帙과 함께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大字法華經을 書寫하는 등 법화경 사경 공덕에 대한 신앙은 널리 유행되었다.

5) 『世宗實錄』 권30, 7년 11월 15일條.

6) 上同.

7) 『太祖實錄』 권6, 3년 7월 17일條.

8) 千惠鳳, 「韓國의 典籍」, 『國寶』, 예경산업사, p. 211.

9) 日本 京都博物館 소장, 紺紙銀泥法華經 卷第五(斷簡) 跋文.

10) 『世宗實錄』 권1, 卽位年 4월 10일條

11) 『楊村集』 卷37, 普覺國師碑 ‘…及母卒, 倩寫大字妙法華經, 以資冥福, 云云’

또한 이들 법화경 외에도 現傳하는 여러 불경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는데 대체로 이들은 세종 32년(1450) 愼嬪 金氏가 막내아들 懷簡公 槧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여 寫成한 白紙金泥金剛經(國立中央博物館), 그리고 世祖 3년(1457) 王世子가 어린 나이로 죽자 追福을 위하여 이룩한 法華經·地藏經·起信論·梵網經·行願品 등을 들 수 있다.¹²⁾ 뿐만 아니라 宣祖妃 仁穆王后가 오랜 윤희생활을 통하여 光海君 14年(1622)에 직접 필사하고 표지에 아름다운 수를 놓은 紅紙墨書金光明經(東國大博物館)은 조선시대 후기 宮中繡의 眞髓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전문 寫經僧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왕후의 순수한 佛心을 느끼게 하는 사경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영조 4년(1728)의 紺紙金泥華嚴經 卷第41(釜山東亞大博物館), 헌종 2년(1836)의 華嚴經 卷第50(國立中央博物館) 등은 모두 조선시대 후기 말기적 작품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高宗 17년(1880)의 紺紬金泥法華經 1帙(通度寺聖寶博物館)은 이 시대를 마감하는 이름난 사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경은 寫經紙의 변화를 가져온 작품이며 長文의 발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正眞이 發意하여 通度寺에 道場을 개설하고 曹溪衲子 元奇에 의하여 필사된 매우 뛰어난 사경이다. 사실 조선시대의 사경은 고려 시대에 비하여 장정이라든지 서체가 떨어진다는 중평을 받고 있으나 이 사경은 그간의 杞憂를 가시게 하는 말기적 수작이라 하겠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사경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그 체제가 거대해진 감이 있으며 작품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개중에는 뛰어난 작품도 있다. 그러나 變相이 생략되는 등 간략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기도 하지만 功德經의 영향에 힘입어 때로는 金泥 또는 銀泥의 작품이 이룩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墨書經도 유행하였다. 그것은 불교의 교세와도 연관이 있겠으나 이같은 사실은 유교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의 경제력을 말해주는 단적인 자료가 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Ⅲ. 體裁와 跋文의 內容

조선시대 사경 역시 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다만 그 跋文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발문의 내용이 고려시대에 비하여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도 한 변화라 하겠지만 국가적 발원 보다는 개인적 家內一門의 安寧과 亡者에 대한 追福의 성격으로 기울고 있다 하겠

12) 前掲, 『韓國의 典籍』, p. 211.

다. 또한 卷末에만 기록되고 있는 跋文으로 인하여 散帙이 된 佛經의 경우 그 연대 추정에 혼란을 가져 온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하여는 跋文을 근거로 한 양식적 대비로써 해명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제 年記가 확실한 현존 중요 사경과 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白紙墨書妙法蓮華經 卷第七

1) 現狀(도판 1)

太宗 5年(1405), 36.0×12.8cm, 折帖, 서울 黃壽永 舊藏.

壯紙에 方正한 楷書體로 墨書되었으며, 상하에 굵고 가는 金泥의 쌍선이 있고, 上下 24.6cm에 1面 6行, 1行 17字로서 金泥의 界線이 있다. 사경의 전후면 표지가 결실되었으나 발문에 따르면 金銀泥로써 장식되었음을 알겠으나, 변상의 유무는 알 수 없다.

2) 跋文

右法華經一部梵網經一卷金剛，般若一卷行願品一卷乃道人信，雲爲告父母李氏金氏同出火宅齊，達寶所謹發誠心欲成法寶進告，于相國韓尙植室尹氏相財同願驪，城君閔無疾室韓氏從而隨喜字，以烏玉金銀盡背粧飾極精用以傳，後令見聞者頓免罽罽獲衣珠堅，持戒律淨洗業僣悟般若空行普，賢行於微塵劫廣濟迷倫是所願也，端將此善奉祝，君齡民安國治共霑覆育之恩咸入，無爲之化者永樂乙酉六月十五日，雲萍角之敬跋，

淸州郡夫人韓氏，靜懿宅主韓氏，坡平郡夫人尹氏，乍韓國大夫人宋氏，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범화경 뿐 아니라 범망경·금강경·보현행원품 등의 불경을 道人 信雲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시주는 相國 韓尙植의 妻 尹氏와 驪城君 閔無疾의 처 韓氏였음을 알게 한다. 이 때의 민무질은 太宗의 妃 元敬王后의 동생이며, 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여성군에 봉해진 왕실 측근으로서 충분히 시주가 됨직한 인물이다. 따라서 永樂乙酉 즉 태종 5년(1405)에 雲萍角之 敬跋이라고 하였고, 그 말미에 이 사경과 인연을 맺은 위의 두 사람과 一門의 女人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글자는 烏玉(墨書)으로 하고 표지는 金銀泥로써 장식하였음을 기록하였다.

2. 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五(斷簡)

1) 現狀(도판 2)

太宗 8年(1408)頃, 30.6×53.3cm, 折帖, 日本 京都博物館 所藏.

太祖의 三男 益安大君 芳毅가 아버지 太上王, 上王(定宗·芳果), 그리고 主上의 壽福을 빌기 위하여 寫成한 귀중한 사경이다. 이는 斷片이므로 발문 뒷부분이 단절되었으나 법화경 「如來壽量品」의 卷尾를 기록하고 있어 법화경 제5권임을 알게 한다.

2) 跋文

定社功臣益安大君芳毅竊荷, 祖宗毓慶之蔭早享鼎食, 恩庇罔極思所以憑茲, 覺皇慈援豈報其萬一端祝, 大上王殿下壽等齊天, 神懿王后在天之靈躋攀樂階, 上王殿下永與大妃長亨五福, 主上殿下負屨億萬春秋, 靖妃殿下椒闈衍慶金枝永茂, 元子千秋宗室康寧臣忠子孝國治民, 樂次願已躬并同室貞惠翁主崔氏兼, 及一家曰子曰女現增壽福當生樂鄉, 敬捨淨賄銷銀染楮騰寫蓮經用以流, 通續佛慧命轉利無窮俱脫三界苦羂(以下 斷切)

이상의 발문에 따르면 이 사경은 定宗 즉위와 더불어 29명의 定社功臣에 든 태조의 제3왕자 益安大君 芳毅가 발원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게 한다. 발문 가운데 ‘大上王殿下壽等齊天 神懿王后在天之靈躋攀樂階’라 한 것으로 보아 태조 生時인 태종 8년(1408)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神懿王后 韓氏¹³⁾의 追福과 함께 上王(定宗)과 主上(太宗)의 壽福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次願에 同室 貞惠翁主¹⁴⁾와 최씨만을 기록한 것은 이들의 시주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이는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겪은 조선왕실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佛力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염원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사경이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 사경이 일본에까지 흘러갔으며, 또한 앞부분은 이미 단절되고 卷尾部分만 남았는지 기구한 운명이라 하겠다. 다만 끝부분이 단절됨으로써 이 사경의 제작에 따른 절대년대를 알 수 없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3. 白紙墨書妙法蓮華經 1帙(七冊)

1) 現狀(도판 3)

太宗 15年(1415), 36.2×14.0cm, 折帖, 扶安 來蘇寺 所藏(전주박물관 보관) 보물 제

13) 태조의 正妃로서 恭讓王 3년(1391)에 사망한다.

14) 懿嬪權氏 소생으로 雲城府院君 朴從愚에게 출가하였다.

278호.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제작된 조선시대의 보기 드문 完帙經이다. 표지에는 金銀泥寶相花紋이 있고, 다시 卷首에는 變相이 있다. 변상의 구도는 高麗 法華經 變相을 답습한 형식이며 서체 역시 고려사경에 비하여 세련되지 못한 편이다. 天地線은 上下單線이며 金泥의 界線에 1面 6行, 1行 17字이다.

2) 跋文

책7권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발문이 있다.

欺典如輪王髻珠尊勝無比書持讀誦，利洽幽冥今李氏丁良人柳謹之喪哀，不自勝敬寫靈文以薦冥福追遠之，誠豈淺淺哉柳氏之清升審可必也時，永樂乙未秋七月 日跋

위의 내용에 대하여 “李丁良의 죽음을 애도하여 柳氏가 이 寫經을 발원했음을 알 수 있다.”¹⁵⁾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풀이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화경은 전륜성왕의 髻珠와 같아서 尊勝하기 비길 데 없으므로 써서 지니고 독송하면 幽冥에 利洽하리라. 이제 이씨가 良人(남편) 柳謹의 喪을 당하매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靈文을 敬寫하였으니 명복을 빌고 追願하는 정성이 어찌 깊지 않겠는가. 유씨의 清升(往生極樂)은 틀림없이 환히 알 것이로다.”라 할 수 있겠다. 永樂乙未은 곧 태종 15년(1415)이며, 또한 미망인 이씨가 남편 柳謹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제작한 민간 차원의 사경임을 알게 한다.

4. 紺紙銀泥妙法蓮華經

1) 現狀(도판 4)

世宗 4年(1422), 41.8×14.3cm, 折帖. 天安 廣德寺 所藏(第1·7卷 국립중앙박물관 保管, 第2·4·6卷 서울 東國大博物館 保管)

이 사경은 본래 천안의 광덕사 소장으로 전해졌으나 현재는 동국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나뉘어져 보관되어 있다. 사경의 체제는 고려사경과 동일하여 뒤의 발문이 없으면 고려사경으로 판단될 지경이다. 다만 고려시대의 일반 사경에 비하여 그 규격이 다소 커진 점을 제외한다면 전적으로 고려사경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작품이다.

15)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미진사, 1986), p. 466.

表紙에는 모두 아름다운 금은니보상화문이 있으나 제7권의 뒷표지 부분만 결실되었다. 卷首에는 每卷 金泥變相畫를 등장시켰으며, 1면 6행, 1행 17자의 일반적 형식을 취하였다. 銀字의 본문은 전형적인 사경체에서 더욱 숙달된 조형미를 지닌다. 굵고 가는 金泥쌍선에 본문은 상하 29.2cm이다.

2) 跋文

紺紙에 기록된 銀字는 상태가 좋으며, 제7권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발문이 있어 그 연대와 발원자 및 필사자를 알 수 있다.

夫此經包盡萬法實相大乘之肝心也此」丘德明有志於法供養清寫於余余亦丁毋」
憂樂爲之書嗚呼右師之心蓋與隨」喜檀那同歸樂域矣」永樂壬寅冬月尙嚴識」永老」(外 20명의 僧俗)

발문의 내용을 풀이하면 “이 법화경은 萬法の 實相을 모두 포함한 大乘의 肝心이다. 비구 德明이 저 法供養에 뜻을 두고 나에게 清寫토록 하여 나 또한 근심과 즐거움의 분별이 없이 이 경을 필사하였나니 오호라 스님의 마음은 대개 隨喜檀那로 더불어 함께 극락세계에 나리라. 영락 임인년 겨울 尙嚴이 기록하노라” 라고 하겠다. 그 아래에는 시주자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永樂壬寅은 세종 4년(1422)이며, 발원자는 德明比丘이고 필사자는 尙嚴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경을 고려시대인 14세기 후반(1350)의 뛰어난 걸작¹⁶⁾으로 보는 오류를 범한 것도 조선초기까지 고려양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경은 15세기 까지도 고려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부분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그러므로 고려사경의 체재나 형식을 지니고 있다 하여 무조건 고려사경으로 보아 왔던 종래의 견해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 본다. 또한 제1권 말미에도 永嘉郡夫人權氏 외 40여명의 僧俗 功德主를 기록하고 있어 이 사경이 공덕경임을 알게 한다.

5. 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蜜經

1) 現狀(도판 5)

世宗 32年(1450), 31.2×12.7cm, 折帖.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6) 『高麗佛畫』韓國의 美 7(중앙일보, 1981), p. 256.

表題에는 墨書로 '匪懈堂書法'이라 하였고, 本文은 金泥太細雙線에 上下 25.1cm이며, 金泥界線에 1면 6행, 1행 17자이다. 卷首에 變相은 없으나 卷末에 童眞菩薩 1구를 金線으로 묘사하였다.

2) 跋文

동진보살의 그림에 이어 다음과 같은 발문이 있다.

大歲景泰元年庚午五月 日愼嬪金氏爲末子亡潭陽君懷簡公渠超生淨界之意願成 金剛般若波羅蜜經一卷

景泰元年是 세종 32년(1450)이며, 내용은 신빈 김씨가 죽은 막내아들 담양군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금강경 1권을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발문 다음에 아래와 같은 墨書의 識記가 있어 이 사경은 安平大君의 글씨로 전해진 듯하다.

安平大君名瑒字清之 世宗第三子也號匪懈堂書法爲東方第一且能詩章結文學之士優游酬唱於太平之世以此最見忌忤卒以禍死而亦不知死在何時坐以何言也蓋以浮華取禍云 語出李星齡日月錄

6. 紅紙墨書金光明最勝王經 卷第二~十

1) 現狀(도판 6)

光海君 14年(1622), 34.6×12.0cm, 折帖, 서울 東國大博物館 所藏.

이 사경은 宣祖의 妃 仁穆王后(1584~1632)를 위하여 필사된 궁중 寫經이다. 본래 10권 모두 경기도 安城의 七長寺에 전래되었으나 현재 제1권이 결실된 채 東國大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사경은 光海君의 폭정을 전후한 시기, 인목왕후 측근들의 官等이 열거되는 등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잠시 당시의 배경을 살피면, 宣祖의 아들 13명은 모두 後宮의 소생이었으나 마지막 14번째 태어난 永昌大君만이 오로지 正宮의 소생인 인목왕후의 아들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선조는 이미 세자로 책봉한 광해군을 싫어하여 영의정 柳永慶 등 몇몇 신하들과 영창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몰래 의논하였다. 세자 책봉을 진행하던 중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광해군은 그날로 왕위에 올라 다음 해 1609년 만형인 臨海君을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재위 5년(1613)에는 소위 大北派 李爾瞻, 鄭仁弘 등의 모함으로 인목왕후의 아버지 延興府院君 金悌

男을 역모죄로 몰아 西小門 밖에서 사형에 처했다. 한편 어린 영창대군마저 庶人으로 만들어 江華에 가두었다가 江華府使 鄭沆에 의하여 참혹한 최후를 당하였고, 한편 인목왕후는 西宮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짐작컨데 이 사경은 인목왕후가 기구하고 참혹한 세월을 당하여 그 자신 西宮에 유폐된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경이 광해군 14년(1622)에 완성되었는데 이듬 해 소위 仁祖反正으로 광해군의 폭정을 물리치고 綾陽君(仁祖)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유폐생활에서 오로지 佛力에 의하여 이 사경을 필사하였으므로 일반 사경체와는 그 양식이 전혀 다르고 탈속한 느낌마저 드는 편안한 서체이다. 또 이 시기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觀音菩薩普門品 사경이 금강산 楡岾寺에 전한다 하나 그 存否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이 사경의 체재는 여성적 성격이 매우 농후하고 표지에 五行과 같은 配色이 있어 주목되기도 한다. 사경지는 백지에 연분홍 물을 드렸고 표지는 두터운 壯紙에 청·황·적·백·흑색과 같은 五色 비단 바탕을 전후면에 각기 달리 배색하고 전면 표지에는 아름다운 연꽃자수를 놓았다. 표지의 연꽃 자수는 다시 수실로써 그 외곽을 직사각형으로 둘러싸고 經題는 모두 적색 바탕 위에 墨書되었다. 본래 사경을 넣었던 經箱으로 보이는 3매의 두터운 각지가 남아 있는데 이들은 현재 연결부가 떨어졌고 1매는 결실되었다. 상자 표면에도 연꽃자수를 아름답게 장식하였고,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金光明最勝王經十件金匣'이라 묵서되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10권의 사경을 넣었던 經箱이었음을 알게 한다. 사경은 折帖으로서 변상은 없고 上下 28cm의 墨書單線이며, 1면 5행, 1행 15字이다. 표지의 연꽃자수는 모두 청·황·적·백색 등이나 탈색된 부분이 있다.

본래 金光明最勝王經은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당나라 長安 3년(703) 義淨三藏에 의하여 번역되었고 옛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微妙한 불경으로 널리 알려졌으므로 이 불경이 사경되었다고 생각된다.

2) 跋文

매권 모두 동일한 발문을 지니고 있으나 제9권에서는 駙馬洪氏 등이 추가된 것만이 다르다. 먼저 제2권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昭聖貞懿王大妃特爲己身手書成金光。明最勝王經一件伏願厄難消除遠離惡。人 吉慶常逢心志之願隨意成就

從此永「離女身速脫輪迴願生極樂無量壽佛」所與父母同氣及忠婢兒子同處同居同，樂暫不乖離永受快樂，領議政金侯兩位，延興府院君金梯男 光山府夫人盧氏 永昌大君李讓 公主李氏 牧，使金球 進士金珪 儒學金瑄 縣，令金孝男 縣令沈挺世 溫人金氏 惠人鄭氏 阿只春根 尙宮金氏應喜 尙宮，邊氏禮淑 尙宮金氏德福 尙宮金氏慶玉 尙宮權氏烈伊 典衣吳氏香，伊 李氏環伊 沈氏禮環 超生淨界，永受快樂速脫輪迴之願，貞明公主李氏壽命延長福祿遐遠洪，枝茂繁業障消除災難滅盡之願，典膳朱氏淑伊 典言丁氏玉伊 典言，白氏禮淑 嚴氏 金氏，淑嬪壽命長遠榮祿深遠形盡之後超，生西方極樂世界受天快樂，

大明天啓二年壬戌月 日 敬書

위의 발문 가운데 昭聖·貞懿는 모두 인목왕비의 尊號이며, ‘永離女身’과 같은 소박한 여성적 소원이 눈에 띄이기도 한다. 이는 불도 수행에 女身을 장애로 알고 있는 불교적 여성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남성위주 사회였던 조선시대상의 단면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어쩌면 오랜 윤회생활과 여성으로서의 한많은 삶을 이같은 發願으로 표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발문 가운데 부모와 더불어 동기와 忠婢와 兒子 등이 同處·同居·同樂하며 잠시라도 어긋나 떠나지 말고 길이 쾌락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매우 순수하고 소박한 여인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인목왕후의 주변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 忠婢와 兒子들까지도 발원문에 함께 기록한 것은 인목왕후 스스로의 불심과 함께 불교 신앙에 입각한 평등의 원리를 느끼게 한다.

그 다음으로 열거된 인명 가운데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 李讓, 그리고 상궁을 비롯한 왕비 주변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이들은 왕후의 주변 인물로서 이 사경을 필사할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경은 광해군의 폭정 속에서 寫成되어 인조반정 이후 왕대비가 된 소위 인목대비의 念願이 서린 현장의 유물이란 뜻에서 자못 역사적 소산이 된다. 天啓 2년은 광해권 14년(1622)이며 이 사경이 왕실의 大妃에 의하여 寫成된 현존 唯一本일 뿐 아니라 당시의 궁중 자수를 살필 수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7.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

1) 現狀(도판 7)

英祖 4年(1728), 27.0×10.6cm, 折帖, 釜山 東亞大博物館 所藏.

고려시대와 같은 화려한 金銀泥畫의 표지 장식은 약화되었고 다만 卷首에 折帖 2매(21.2×19.5cm)의 變相을 등장시켰는데 우측 1면에 비로자나불을 측면관으로, 좌측 1면에 보현

보살을 정면관으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普賢行願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한 설명도에 불과하고, 고려시대와 같은 설명 그림의 變相은 아니므로 현격한 양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문은 天地單線이며 上下 19.7cm에 1면 6행, 1행 16~17자이다. 경문에는 후에 독송을 위한 懸吐가 있다.

2) 跋文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발문이 있다.

雍正六年戊申三月日，重修沙門藏元 奉行，書寫比丘法徵，王妃殿下壽齊年，主上殿下壽萬世，世子邸下壽千秋，天下太平法輪轉，先王先后悟無生，諸宮宗室各安寧，文武伯寮盡忠良，道內方伯位益高，城主兩位增祿位，四事施主壽命長，戈干永息於四方，國界恒安於萬歲，施金施主，褒萬哲兩主(外 36명의 人名 列舉)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이상에서 重修沙門 藏元은 이 사경의 제작을 위한 裝幀을 맡았거나 또는 책임자로 보이며, 그 필사자는 法徵임을 알겠다. 따라서 이 사경은 30여명에 이르는 佛子들의 발원과 시주로써 이룩된 功德經임을 알게 한다.

8.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五十·五十一

1) 現狀(도판 8)

憲宗 2年(1836), 31.0×19.8cm, 線裝,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경남 梁山의 通度寺에서 필사된 金泥사경으로, 그 서체는 현대의 정밀한 인쇄체처럼 완성된 것이 특이하다. 그 체재는 線裝本이며, 표지는 적색비단을 壯紙에 背接하였다. 卷首의 變相은 없고 매장 외곽에 쌍선을 들렀는데 그 첫면은 공백이고, 다음 장에 金泥의 圓相을 그렸다. 본문은 매장 목판의 형식을 나타내 중앙의 板心 부분에 張數와 魚尾가 있으며, 金泥의 界線이 있다. 매장 9행이고 1행 18자이다. 본래 80권 全卷을 필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散帙로서 2권만 남아 있다.

2) 跋文

이 사경은 제50권과 51권을 합冊하였는데 발문은 다음과 같다.

主上殿下聖壽萬歲，王妃殿下聖壽萬歲 大王大妃殿下聖壽萬歲，施主，信女樂念華(외 약 30의 人名 列舉)
廻向，黃金施主書寫功德並願四恩百辟盡觸，遮那之光九類四生咸歸法界之海者，
歲 道光十六年丙申仲冬書于慶尙左道梁山，鷲棲山通度寺 金剛戒壇下普光殿中，
華嚴經出現品 海東比丘 龍巖慧彥校正 冲虛宇闔執勞
天字卷 共字八千四百十箇 龍巖後人 應奎寫
寶祚長安 帝道遐昌 四恩百辟 同證玄門

발문에는 화엄경 出現品 서사의 校正과 주선자의 法名을 기록하였는데 이 사경의 千字卷 17)의 共字는 8410字라고 표시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그 필사자는 應奎라고 하였다.道光 16년은 憲宗 2년(1836)이며, 이 사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한 木板 화엄경의 字體와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는 조선시대 후기 변화된 사경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9. 紺紬金銀泥梵網經

1) 現狀

憲宗 3年(1837), 27.0×16.0cm, 線裝, 서울 趙明基 舊藏.

사경의 表紙는 적색비단으로 배접되었으며 變相은 없다. 체제는 앞의 통도사 보광전에서 제작된 화엄경과 거의 동일하며, 범망경 전체를 金銀字로써 필사하였는데 佛·菩薩 등의 글자는 金書로 하였다.

2) 跋文

말미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慶讚廻向 證正 龍巖慧彥，願此勝因皆上薦 四恩百辟及含生 寶祚長安帝道昌 同證玄門齊智海，佛日增輝 法輪常轉，施主坤命 癸巳生金氏 信男辛酉生鄭，好成 信女癸亥生金氏 長子己卯生，鄭春碧 婦丁丑生金氏 次子鄭仁碧，對校 德雲教演 化緣尼 處英，道光丁酉九月既望 南華 張夢義 書于花山龍珠寺爐殿，

17) 千字文의 순서에 따른 函次의 순서.

따라서 이 사경 제작의 證明은 龍巖慧彥이고, 慶讚偈에 이어 시주자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경의 對校者와 함께 시주를 거둔 處英이란 女僧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또 필사자는 張夢羲이며 1837년 9월에 水原 龍珠寺 爐殿에서 寫成하였음을 알게 한다.

10. 紺紬金泥妙法蓮華經一帙(14冊)

1) 現狀(도판 9)

高宗 17年(1880), 30.0×20.0cm, 線裝, 梁山 通度寺聖寶博物館 所藏.

線裝本の 표지는 적색 또는 감청색 바탕에 당초무늬 또는 飛龍무늬를 놓은 비단으로 배접되었다. 이들 무늬의 刺繡는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이며, 經題는 백색비단에 '法華經'이라 하였고, 卷數를 기록하였는데 落款에 의하여 一堂 李完用이 經題를 썼음을 알게 한다. 이는 마치 신라시대 이래로 사경의 經題를 국왕 또는 권력층에서 기록하였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¹⁸⁾ 본문의 바탕은 순수한 紺紙가 아니고 紺靑色 종이에 역시 紺色의 얇은 명주(紬)를 배접하여 곱게 처리하였다. 卷首의 변상은 없고, 본문은 金泥에 四周雙線으로써 목판 형식의 板心에 해당하는 중간에는 經名과 張數 등을 표시하고 金泥界線을 지녔다. 1면 8행, 1행 16자의 방정한 해서체로서 법화경 全帙을 시종 동일하게 필사하였다. 14冊으로 分書製冊된 金書의 채색은 화려 선명하며, 전권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성은 뒤의 발문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供養經임을 알게 한다.

2) 跋文

寫經緣記

嶺左東萊府金井山梵魚寺釋正眞蔚,山人孫悠摩之子也早喪其父入山薙髮者十有年 歲戊寅五月二十八日夜忽得一夢有老僧呼與俱去行至一處顧眄之間不見老僧駭足之地變成海島雲濤無涯忽有一人來立于前詰其鄉貫姓名眞以實對那人太息曰汝是吾兒別汝多年幽顯路殊逢着無由今日相見實是大幸言畢痛哭眞情雖悽惻疑其容音有異於生時更問平生所業及別世日時歷歷符合無一差戾眞於是失聲悲泣其父撫慰曰善惡之報自作自受哭之何益此處乃閻浮提東有一地獄名曰繞蛇吾在此中受苦無歇言之酸矣汝之從叔及同里朴文澤亦在其中曩吾初來有一人生天者乃中國蘇州刺史鄭益壽以其子太乙誦法華經千遍之功云汝可爲我寫法華經一部讀滿萬遍則可有離苦得樂之期千萬努力言訖不見眞驚悟言猶在耳以告其母信女金氏母亦不勝悲愴誓副幽托而但家無所貯不可獨辦且諸佛本願貴在兼濟故募緣於檀門營此佛事三年庚辰秋經始將寫之際有一山貂入堂徘徊

18) 張忠植, 『直指寺』 本寺篇(佛地社, 1994), pp. 189~190 및 『直指寺誌』(亞細亞文化社, 1980), pp. 35~36.

狀若家畜因取」其毫以助管城只用 一枝終寫全部勢」不耗禿噫亦曾未有也倘非法華之神」力歟」

寫蓮華經後跋

嘗讀法華靈驗錄見百七奇異固非凡」情所可測度信乎如來之教多所饒益」變地獄作 天堂穢生死爲涅槃妙在頃」刻至如病者爲藥貧者爲寶示正路於」失途揭光明於暗夜 普應如摩尼洪注」若甘露者惟此法華經歟然近世無目」擊之報應往往闕提不信之輩 以因果」爲茫然設有傳記特書之實蹟亦推歸」將信將疑之地卒無拔濟之方矣今以」正眞之事觀之果何如哉孰謂無因果」報應而肆於惡情於善者乎惟我」

中宮殿下懿德罕古仁風冠今俄因正眞」之惇獨兼察含靈之塗炭特回 昭鑑荐起大 悲 傳下寫經之資開道場於」通度寺白蓮社以黃金爲墨玄練爲紙」用寫七軌蓮經差本社座主五聲右竺」監是事又命曹溪衲子元奇書是經兩」人也 一心服役百足不佃凡再閱月而」回向之夫法華大乘終極之教流布末」葉實爲希有況如此書寫供養者乎故」知 聖恩如天無得而稱焉願回茲勝」善上資 寶壽下阜民祿幽顯萬類同證法華三昧」云爾 光緒六年庚辰十月日 緣化秩 證明龍湖珠海 校正一雨致珣 禪德徹虛警愚 誦呪萬化勝林 維那海峰度遠 都監五聲右竺 持殿比丘德和 別座比丘雲雲 供司比丘法守 別供比丘印玄 三綱 僧統有學 和尚琪錫 記室致鑑化主正眞伏爲 亡父孫悠摩靈駕 生母金氏孝烈華 亡恩師幻峰堂斗讚」

이상 寫經緣起의 내용은 梵魚寺의 釋正眞이 繞蛇地獄에 빠진 그의 부모를 제도하기 위하여 寫經佛事를 시작하였던 연유를 밝히고 있다. 즉 불사를 준비한지 3년만인 고종 17년(1880) 가을에 사경을 시작하려 할 때 담비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 꼬리털을 제공하는지라 붓 한 자루로써 쏠을 필사한 내력을 적는 등 범화경의 영험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高宗의 妃 明成皇后가 사경의 資材를 내렸고, 그 제작처는 通度寺의 白蓮庵이며, 五聲右竺의 감독과 曹溪衲子 元奇에 의한 필사로써 두 사람이 一心服役하니 모든 것이 만족하여 두 달만에 완성되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관계인명과 발원자 正眞의 부모와 恩師 등을 列記하였다.

光緒六年庚辰은 고종 17년(1880)이므로 이 사경은 이 시대를 마감하는 대표적 금자사경이라 하겠다. 금색의 찬란함이라든지 장정의 우수성 뿐 아니라 서체의 정교함 등에서 모두 당시의 종교적 염원을 담고 있는 뛰어난 사경이라 하겠다.

11. 黑紙金泥阿彌陀經

1) 現狀

高宗 20年(1883), 31.0×20.5, 線裝, 光州 黃尙周 舊藏.

이 사경은 일반적인 紺紙와는 다른 흑색 壯紙 바탕에 金書한 線裝本이며, 7매에 아미타경

전체를 필사하였다. 1면 9행, 1행 18자에 字徑 1cm내외이다. 표지에도 별다른 장식이 없고, 변상 역시 생략되었다.

2) 跋文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발문이 있다.

光緒九年癸未正月日開書于慶尙道陝地伽倻山海印寺 弘濟庵金主德雲永藝以此功德 願登九品書寫冠虛宜官 生前安過死後往生極樂願 先亡父母親戚離於苦趣生 於極樂願共法界諸衆生同 入彌陀大願海自他一時成佛道

아마 이 사경이 개인적 발원에 의하여 이룩된 年記를 알 수 있는 마지막 공덕경이 아닌가 한다. 해인사 흥제암에서 필사하였고 황금을 시주한 德雲堂 永藝의 九品往生과 다시 書寫者 冠虛堂 宜官의 生前 安過와 死後의 往生極樂을 발원하였으며, 先亡 부모와 친척이 모두 苦趣를 떠나 극락왕생과 중생의 成佛을 발원하였다.

IV. 寫經의 性格과 樣式

지금까지 조사된 조선시대 사경의 현상과 발문을 참고하여 사경의 성격과 양식적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선시대의 사경이 그 성격상 고려의 사경과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이미 고려의 사경이 국왕, 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사업이 대중을 이루었음에 비하여 조선의 사경은 건국 초기부터 왕실은 물론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追福에 더욱 치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사경은 시대가 내려가면서부터 더욱 집단적 성격을 띄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고려시대의 국왕발원경¹⁹⁾과 같은 국가적 사경 사업은 왕실주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조선시대의 사경은 그 초기에는 왕실주변의 권력층을 중심으로 사경이 제작되었으나 차츰 시대가 내려오면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불사를 이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19) 張忠植, 「高麗 國王·宮主 發願 金字大藏經考」, 『佛敎와 歷史』(한국불교연구원, 1991), pp. 701~724.
——, 「高麗 金銀字大藏經」, 『韓國佛敎文化思想史』 卷下(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2), pp. 302~331.

것이라 하겠다. 여러 사람이 사경의 비용을 분담하거나 또는 수 십명의 시주를 모아 사경을 이룩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통도사의 화엄경 발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유교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을 짐작케 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권력층으로부터 괴리된 불교의 활동이란 자연히 서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自救策이 강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 사경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부모 등 亡者에 대한 追福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는 왕실은 물론 사대부를 포함하여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같은 성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사경은 전시대를 통하여 범화경이 가장 보편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차츰 시대가 내려가면서 범화경을 위시하여 金光明經·梵網經·金剛經·阿彌陀經과 같은 大乘經典들이 다양하게 필사되었다. 물론 이 시대의 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부모은중경도 寫成되었으나 이는 사경보다도 목판경이 위주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사경이라고 하여 고려사경과 현격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재료의 차이 뿐 아니라 양식에 있어서도 변화되고 있음을 본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두드러진 형식이란 고려시대에 유행하였던 소위 卷子本의 형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적어도 刊記가 확실한 현존 유품을 통하여 본다면 권자본의 형식은 그 下限이 1337년 제작의 紺紙金泥華嚴經(호암미술관 소장)이므로 14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사경의 체제가 折帖形式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형식은 18세기까지 계속되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線裝本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초기의 몇몇 사경은 墨書經으로서 나타나다가 점차 금은자사경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이미 사경체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목판 인쇄체 사경으로 변화된 紺紙金泥, 또는 紺紬金泥의 華嚴經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고려 또는 조선시대 일반적 사경체와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경체가 관심을 모았던 시기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경의 체제 역시 그 초기에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거대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供養經으로 조사되었다. 이 역시 조선시대의 불교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사회경제적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이는 현존하는 연대가 확실한 사경만을 의지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체 11건의 사경 가운데 8건이 금은자사경이고 나머지 3건만 목서경이다. 그러므로 이는 開國初 또는 혼란기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연대가 내려오면서 금은자경이 더욱 유행되고 있는 것은 사경공덕의 개념이 짙게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반 보급을 위한 불경은 목판경이 더욱 대중화되었고 사경 자체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일종의 공덕경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경이라면 금은자가 통념화되지 않았나 한다.

또한 조선시대 초기의 사경들은 대부분 고려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제작년대가 없는 경우 고려시대에 국한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경의 발문은 그 마지막 卷末에 기록되므로 散帙의 경우 그 제작년대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뿐 아니라 고려사경의 경우도 기준작이 되는 연대가 확실한 사경을 중심으로 여타 사경의 체재와 함께 양식적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V. 結語

제작년대가 확실한 십 여종의 조선시대 사경을 통틀어 볼 때 全時代를 통하여 法華經이 가장 보편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겠고, 차츰 시대가 내려가면서 華嚴經을 비롯하여 金光明經·金剛經·梵網經·阿彌陀經 등 다양한 사경이 조성되었다. 물론 이들 외에도 父母恩重經 등의 필사가 있으나 일단 여기에서는 제작년대가 확실한 것만을 살폈다.

이 시대 사경의 체재라든지 형식은 고려시대까지 나타나던 소위 卷字本형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折帖形式이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 말기에 가서는 소위 線裝本의 형식이 더욱 유행되었음을 알게 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 비하여 長文의 발문이 첨부되는 것도 이 시대의 특색이었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사경은 아직까지 寫經紙나 그 체재에 있어서도 고려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므로 이 시대에 속하는 사경 가운데 발문이 없는 경우 대부분 고려시대에 소속시켰던 종래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발문은 보통 마지막 권 末尾에 기록되므로 經卷이 散逸되었을 때는 그 체재와 함께 字體 등에 의하여 소속 경전을 찾아야 하리라 본다. 이같은 예는 廣德寺 法華經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즉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국대박물관 보관품의 양식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체재로 제작된 法華經 1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같은 작업은 비단 조선시대 사경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연대를 알 수 없는 고려시대의 수많은 사경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리라 본다. 즉 제작년대가 확실한 사경을 기준작으로 삼아 여타 사경에 대해서도 체재 또는 양식적 변화를 검토하여 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발문의 정확한 분석은 곧 사경의 조성배경과 함께 당시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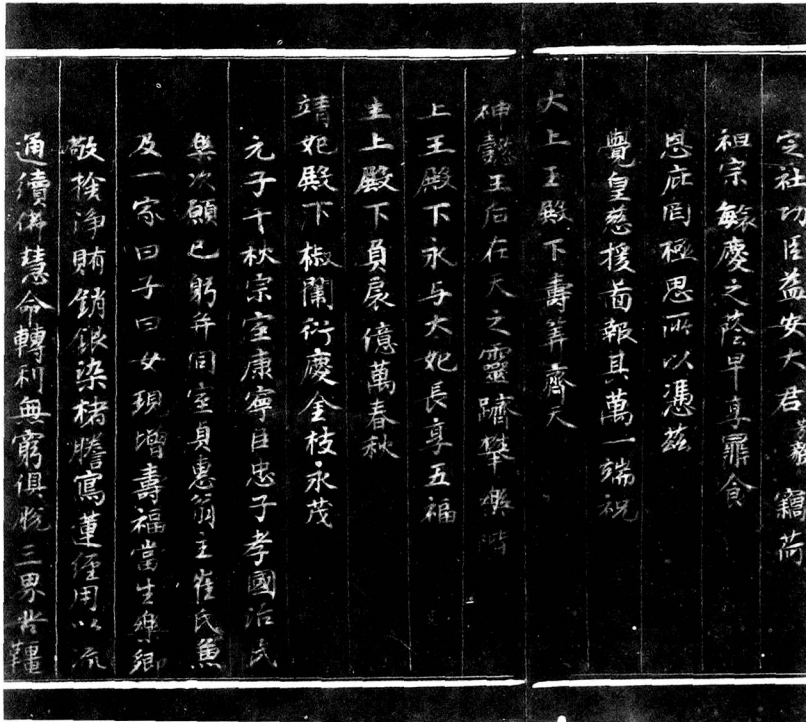
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경은 고려에 비하여 물량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으나 연대가 확실한 현존 사경을 따르면 16세기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國初에서부터 17·18·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사경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國初에서부터 19세기 말기까지 꾸준히 한국 사경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寫經紙에 있어서도 白紙, 紺紙, 椴紙와 같은 전통을 바탕으로 紅紙 또는 紺紬와 같은 새로운 재료의 출현을 가져 온 것도 조선시대 사경의 한 성격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사경의 체재가 권자본에서 折帖을 거쳐 마지막으로 線裝本에 귀결된 것이라면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紺紬金泥法華經 14책이야말로 그 서체나 裝幀面에 있어서 한국 寫經史의 大尾를 장식하는 뛰어난 작품이라 하겠다. 이는 곧 明成皇后의 시주, 그리고 一堂 李完用의 經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뛰어난 사경의 제작에는 王室 등 권력층의 지원이 따랐던 것은 고려와 조선이 그 궤도를 같이하였음을 알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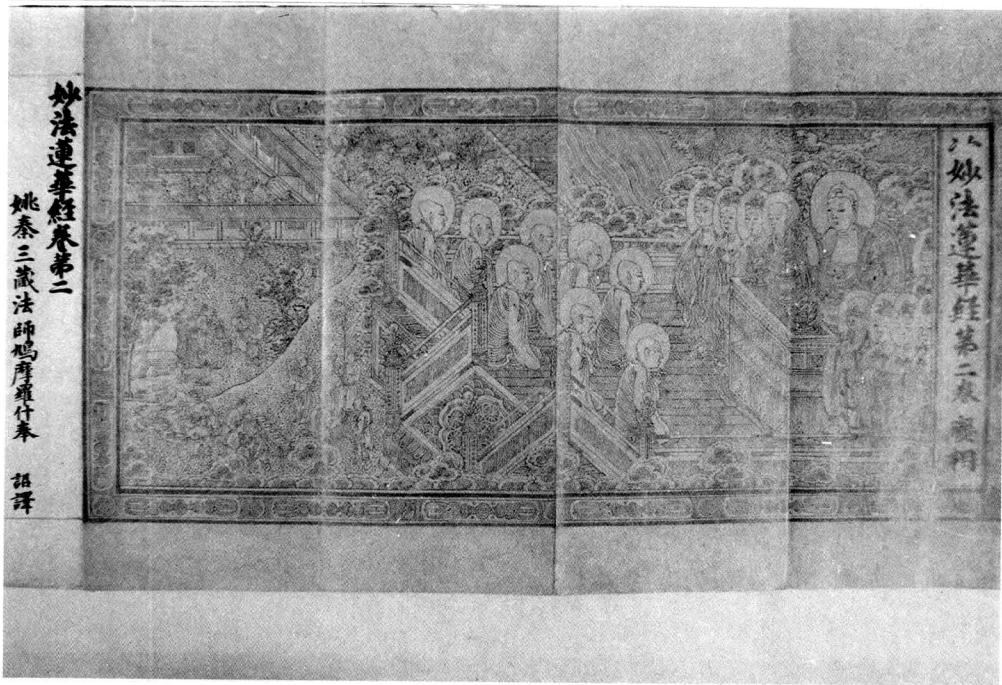
* 사경의 조사에 협조해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 東亞大박물관, 日本 京都博物館, 通度寺聖寶博物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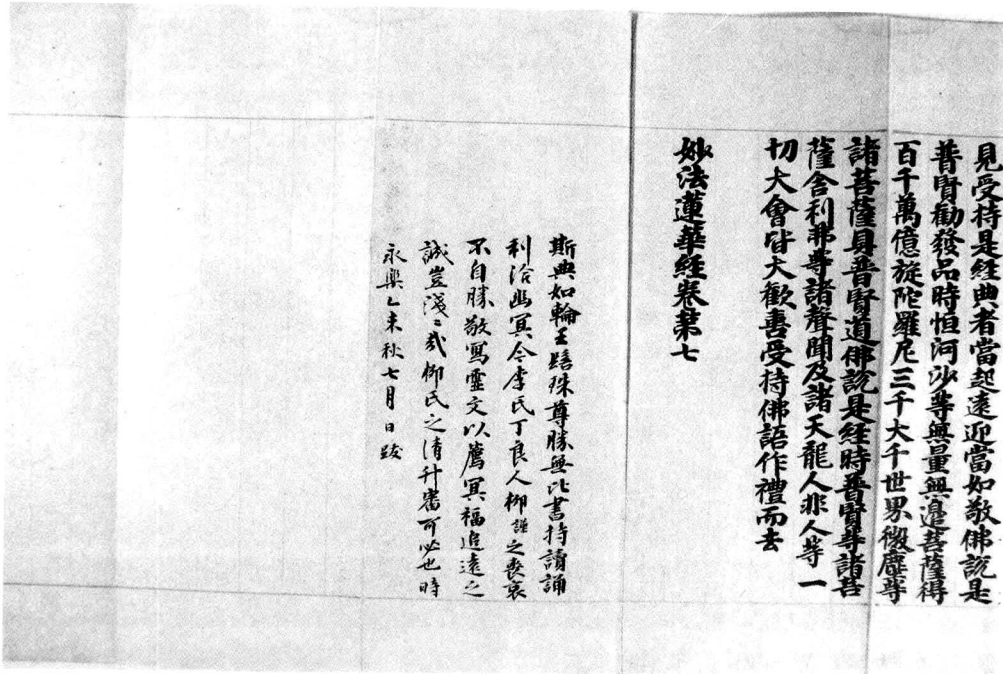
〈도판 1〉 白紙墨書妙法蓮華經 卷第七 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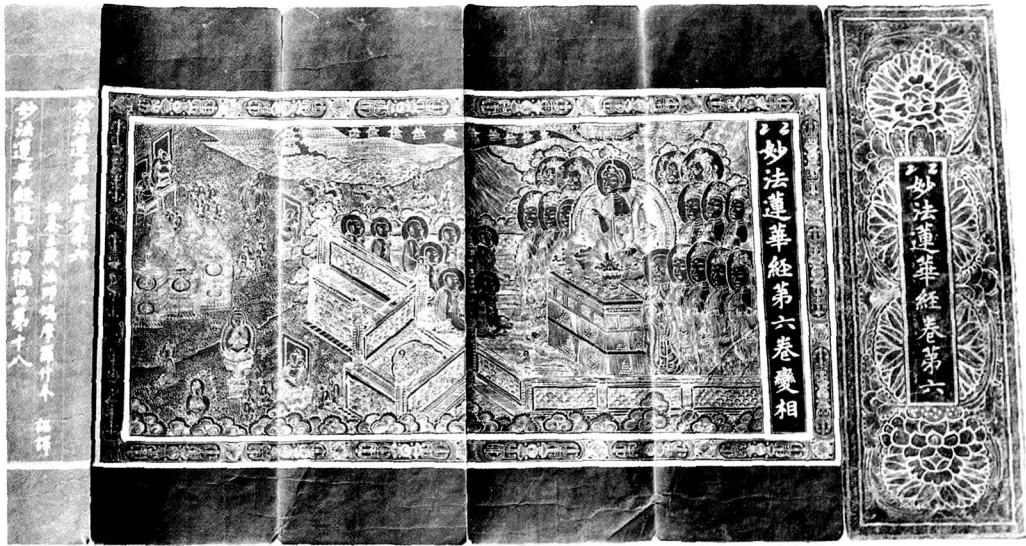
〈도판 2〉 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五 (斷簡)



〈도판 3-1〉 白紙墨書妙法蓮華經 第二卷 變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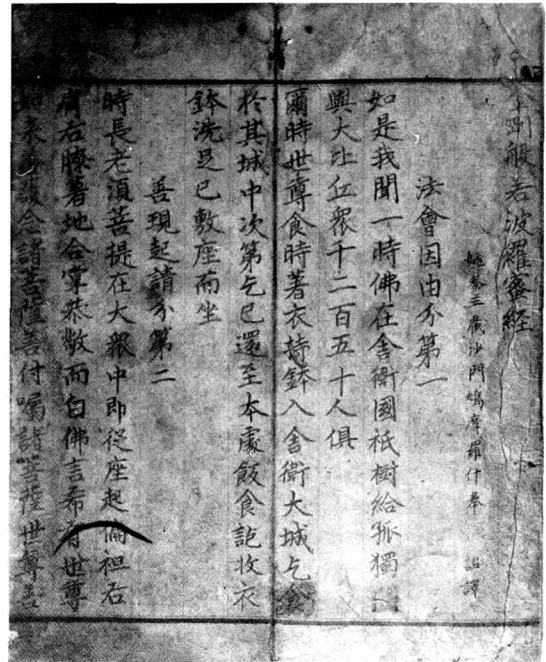
〈도판 3-2〉 白紙墨書妙法蓮華經 第七卷 跋文



〈도판 4-1〉紺紙銀泥妙法蓮華經 第六卷 變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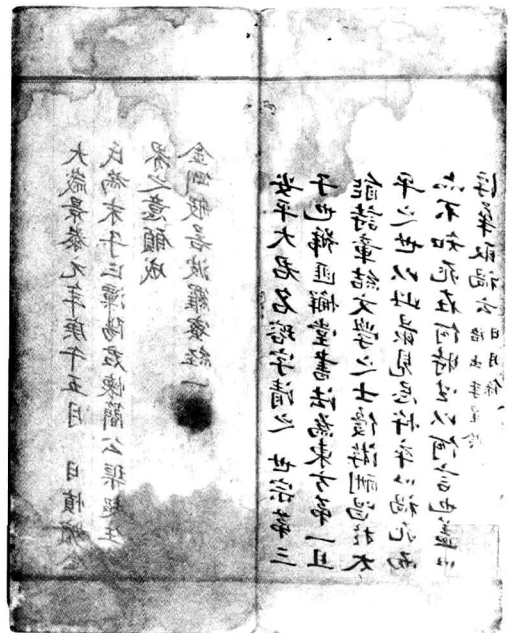


〈도판 4-2〉紺紙銀泥妙法蓮華經 第七卷 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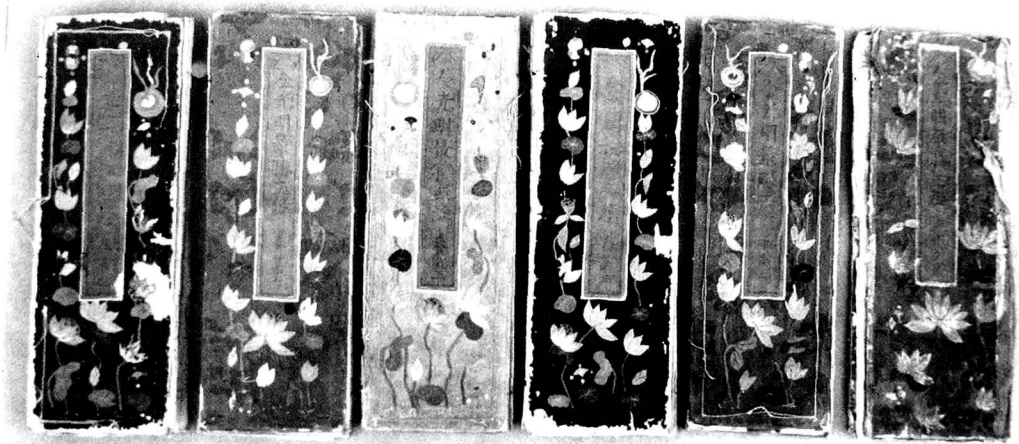
〈도판 4-3〉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二 本文

〈도판 5-1〉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蜜經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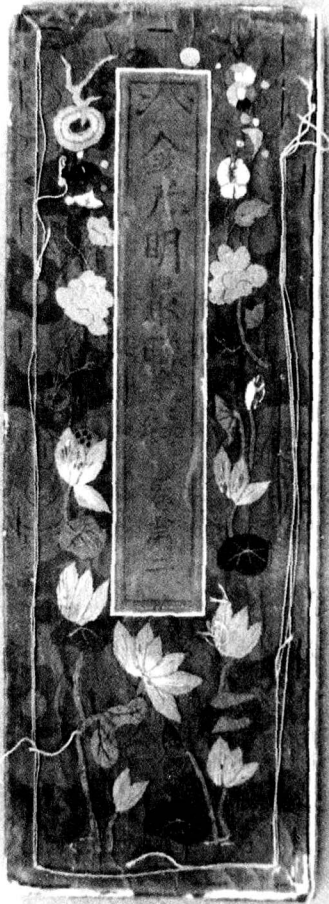


〈도판 5-2〉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蜜經 童真菩薩

〈도판 5-3〉白紙金泥金剛般若波羅蜜經 跋文



〈도판 6-1〉 紅紙墨書金光明最勝王經 表題



〈도판 6-2〉 紅紙墨書金光明最勝王經 卷第二 表題

3
 金光明最勝王經卷第二
 金光明最勝王經分別三身品第三
 爾時虛空藏菩薩摩訶薩在大眾中從
 座而起偏袒右肩右膝著地合掌恭敬
 頂禮佛足以上微妙金寶之華寶幢幡
 蓋而為供養白佛言世尊云何菩薩摩
 訶薩於諸如來甚深祕密如法修行
 佛言善男子諦聽諦聽善思念之吾當
 為汝分別解說善男子一切如來有三
 種身云何為三一者化身二者應身三
 者法身如是三身具足攝受阿耨多羅
 三藐三菩提若正了知速出生死云何
 菩薩子知化身善男子如來昔在修行
 地中為一切衆生修種種法如是修習
 至修行滿修行力故得大自在自在力
 故隨衆生意隨衆生行隨衆生界悉皆
 了別不待時不過時處相應時相應行
 相應說法相應現種種身是名化身善
 男子云何菩薩了知應身謂諸如來為
 諸菩薩得通達故說於真諦為令解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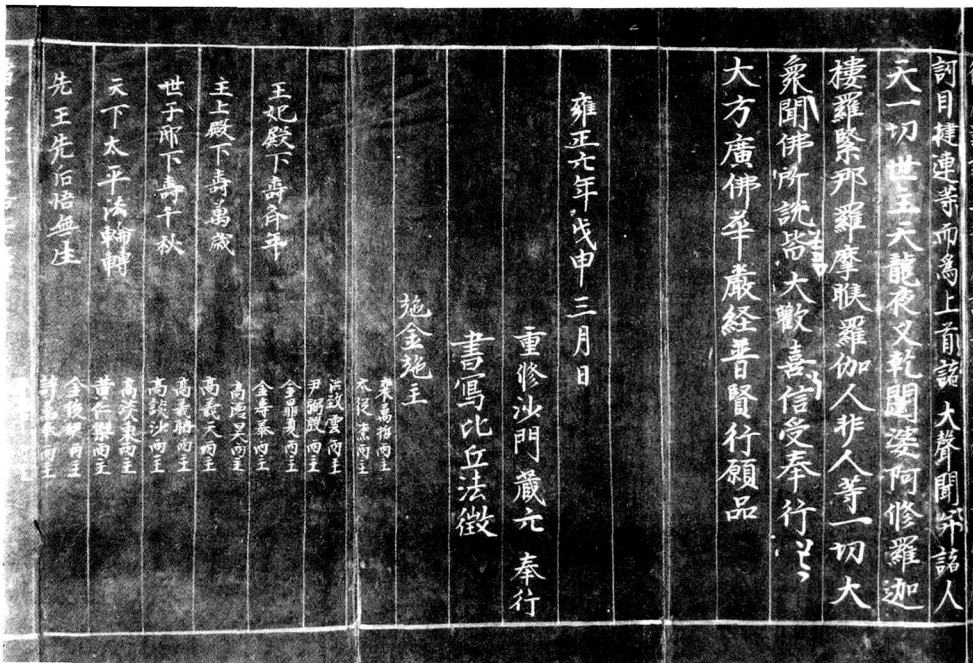
〈도판 6-3〉 紅紙墨書金光明最勝王經 卷第二 本文

金光明最勝王經卷第二
 錄還礦拱淳序屏百倭寓適於的
 梓夫沛的汎范
 昭聖貞懿王大妃特為己身手書成金光
 明最勝王經一件伏願厄難消除遠離惡
 人吉慶常逢心志之願隨意成就從此永
 離女身速脫輪迴願生極樂無量壽佛
 所與父母同氣及忠婢兒子同慶同居同
 樂暫不乖離永受快樂
 領議政金禔兩主
 延興府院君金悌男 光山府夫人盧
 氏 永昌大君李璣 公主李氏 牧
 使金球 進士金珪 儒學金瑄 縣
 令金孝男 縣令沈挺世 溫人金氏 惠人鄭
 氏 阿只春根 尚宮金氏 應喜 尚宮
 邊氏 禮淑 尚宮金氏 德福 尚宮
 氏慶王 尚宮權氏 烈伊 典衣呂氏 香
 伊 李氏 環伊 池氏 禮環 超生淨界
 永受快樂速脫輪迴之願
 貞明公主李氏壽命 延長福極遐遠洪
 枝茂繁業障消除災難滅盡之願
 典膳朱氏淑伊 典言丁氏玉伊 典言
 白氏禮淑 嚴氏 金氏
 淑嬌壽命長遠榮極深遠形盡之後起
 生西方極樂世界受天快樂
 大明天啓三年 壬月 日 敬書

〈도판 6-4〉 紅紙墨書金光明最勝王經 卷第二 跋文



<도판 7-1>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 變相



<도판 7-2>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 跋文

大方廣佛華嚴經卷五十
 于闐國三藏沙門寶叉難陀 譯
 如來出現品第三十七之一
 爾時世尊從眉間白毫相中放大光明名如來
 出現無量百千億那由他阿僧祇光明以為眷
 屬其光普照十方盡虛空法界一切世界右繞
 十百顯現如來無量自在覺悟無數諸菩薩眾
 震動一切十方世界除滅一切諸惡道苦映蔽
 一切諸魔宮殿顯示一切諸佛如來坐菩提座

〈도판 8-1〉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五十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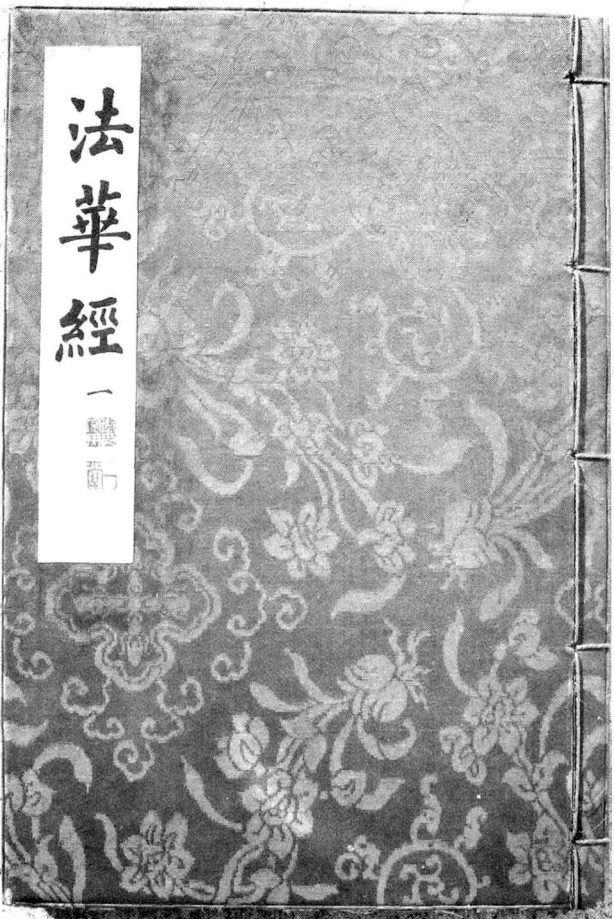
華嚴經出現品
 龍巖慧彦校正
 海東比丘
 冲虛宇瀾執勞

天字卷
 共字八千四
 百十箇
 龍巖後人
 應全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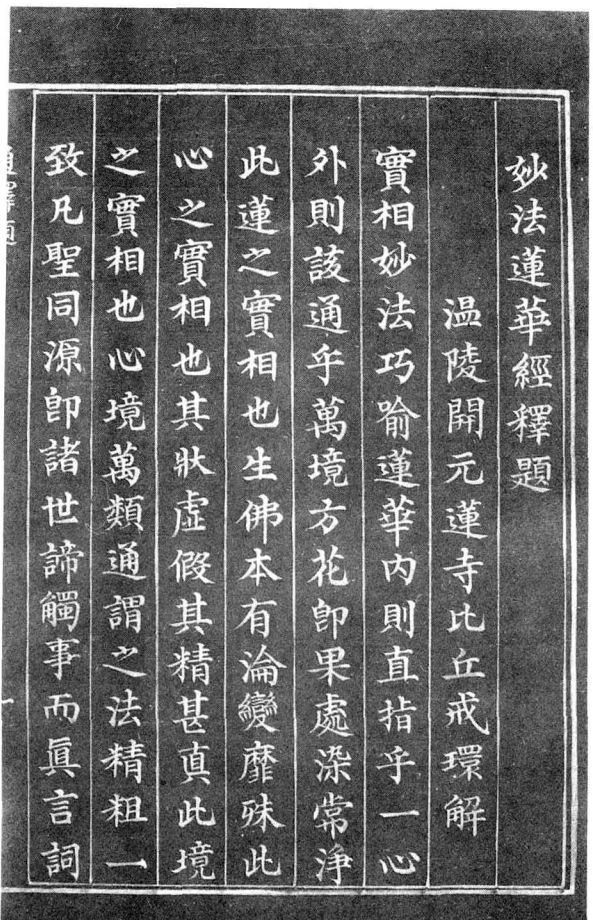
迴向
 此經之主書寫功德無量願同思百辟盡願
 遍照之光九類四生咸歸法界之海者

皆遺光十 六年丙申 仲冬書于 慶尚左道 梁山
 普樓山 通慶寺 全副戒壇 下普光殿中

〈도판 8-2〉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五十一 跋文



〈도판 9-1〉紺紬金泥妙法蓮華經 第一卷 表題



〈도판 9-2〉紺紬金泥妙法蓮華經 第一卷 卷首



〈도판 9-3〉紺紬金泥妙法蓮華經 第十四卷 表題



〈도판 9-4〉紺紬金泥妙法蓮華經 第十四卷 跋文 (部分)